

박형준 / 3월 / 기초GS+ / 9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15486	25	16	0	0	41	1	0.86%	4	116
515726	24	13	0	0	37	2	1.72%	5	
514114	23	13	0	0	36	3	2.59%	5	
515335	23	13	0	0	36	3	2.59%	5	
515429	23	13	0	0	36	3	2.59%	6	
515740	21	15	0	0	36	3	2.59%	6	
516043	21	15	0	0	36	3	2.59%	4	
515421	23	12	0	0	35	8	6.90%	5	
515437	24	11	0	0	35	8	6.90%	6	
515450	21	14	0	0	35	8	6.90%	5	
515514	22	13	0	0	35	8	6.90%	3	
515524	22	13	0	0	35	8	6.90%	5	
515529	23	12	0	0	35	8	6.90%	4	
515546	23	12	0	0	35	8	6.90%	4	
515614	22	13	0	0	35	8	6.90%	4	
515913	23	12	0	0	35	8	6.90%	4	
516047	21	14	0	0	35	8	6.90%	4	
514398	21	13	0	0	34	18	15.52%	3	
514532	23	11	0	0	34	18	15.52%	5	
515370	22	12	0	0	34	18	15.52%	4	
515393	21	13	0	0	34	18	15.52%	5	
515457	22	12	0	0	34	18	15.52%	5	
515472	22	12	0	0	34	18	15.52%	5	
515475	21	13	0	0	34	18	15.52%	5	
515510	23	11	0	0	34	18	15.52%	5	
515569	20	14	0	0	34	18	15.52%	4	
516005	22	12	0	0	34	18	15.52%	4	
516079	21	13	0	0	34	18	15.52%	5	
515366	21	12	0	0	33	29	25.00%	5	
515446	21	12	0	0	33	29	25.00%	5	
515447	21	12	0	0	33	29	25.00%	4	
515456	22	11	0	0	33	29	25.00%	4	
515462	25	8	0	0	33	29	25.00%	6	
515470	21	12	0	0	33	29	25.00%	5	
515490	25	8	0	0	33	29	25.00%	4	
515527	22	11	0	0	33	29	25.00%	4	
515379	24	8	0	0	32	37	31.90%	5	
515381	21	11	0	0	32	37	31.90%	4	
515382	21	11	0	0	32	37	31.90%	5	
515398	20	12	0	0	32	37	31.90%	4	
515523	22	10	0	0	32	37	31.90%	4	
515539	21	11	0	0	32	37	31.90%	3	
515461	20	11	0	0	31	43	37.07%	5	
515491	23	8	0	0	31	43	37.07%	5	
515531	21	10	0	0	31	43	37.07%	4	
515535	22	9	0	0	31	43	37.07%	4	
515659	20	11	0	0	31	43	37.07%	5	
515984	21	10	0	0	31	43	37.07%	5	
516035	21	10	0	0	31	43	37.07%	5	
519401	20	11	0	0	31	43	37.07%	5	
515347	22	8	0	0	30	51	43.97%	4	
515459	20	10	0	0	30	51	43.97%	4	
515481	20	10	0	0	30	51	43.97%	5	
515519	20	10	0	0	30	51	43.97%	5	
515549	20	10	0	0	30	51	43.97%	4	
515568	20	10	0	0	30	51	43.97%	5	
515572	20	10	0	0	30	51	43.97%	4	
515643	23	7	0	0	30	51	43.97%	5	
515658	22	8	0	0	30	51	43.97%	5	
515662	20	10	0	0	30	51	43.97%	4	
515458	19	10	0	0	29	61	52.59%	5	
515504	21	8	0	0	29	61	52.59%	6	

515512	22	7	0	0	29	61	52.59%	4
515516	19	10	0	0	29	61	52.59%	5
515517	21	8	0	0	29	61	52.59%	4
515563	22	7	0	0	29	61	52.59%	4
515564	21	8	0	0	29	61	52.59%	4
515664	22	7	0	0	29	61	52.59%	6
515672	19	10	0	0	29	61	52.59%	4
515844	20	9	0	0	29	61	52.59%	5
516023	20	9	0	0	29	61	52.59%	5
516082	18	11	0	0	29	61	52.59%	5
516105	22	7	0	0	29	61	52.59%	4
514475	21	7	0	0	28	74	63.79%	5
514504	17	11	0	0	28	74	63.79%	4
515355	18	10	0	0	28	74	63.79%	4
515403	23	5	0	0	28	74	63.79%	5
515420	21	7	0	0	28	74	63.79%	5
515423	22	6	0	0	28	74	63.79%	4
515670	19	9	0	0	28	74	63.79%	5
515674	20	8	0	0	28	74	63.79%	5
515947	22	6	0	0	28	74	63.79%	5
516046	21	7	0	0	28	74	63.79%	6
516904	20	8	0	0	28	74	63.79%	5
515497	21	6	0	0	27	85	73.28%	4
515579	22	5	0	0	27	85	73.28%	5
515373	20	6	0	0	26	87	75.00%	4
515409	19	7	0	0	26	87	75.00%	5
515464	17	9	0	0	26	87	75.00%	5
515466	23	3	0	0	26	87	75.00%	5
515479	20	6	0	0	26	87	75.00%	4
515417	20	5	0	0	25	92	79.31%	5
515444	21	4	0	0	25	92	79.31%	6
515487	16	9	0	0	25	92	79.31%	5
515657	18	7	0	0	25	92	79.31%	4
515738	16	9	0	0	25	92	79.31%	5
515385	21	3	0	0	24	97	83.62%	5
515509	22	2	0	0	24	97	83.62%	6
515548	14	10	0	0	24	97	83.62%	4
515650	19	5	0	0	24	97	83.62%	5
515679	19	5	0	0	24	97	83.62%	6
515739	20	4	0	0	24	97	83.62%	4
516030	19	5	0	0	24	97	83.62%	5
515468	18	5	0	0	23	104	89.66%	4
515482	23	0	0	0	23	104	89.66%	6
515846	19	4	0	0	23	104	89.66%	5
516031	19	4	0	0	23	104	89.66%	5
516325	13	10	0	0	23	104	89.66%	5
515378	15	7	0	0	22	109	93.97%	5
515685	20	2	0	0	22	109	93.97%	5
515734	20	2	0	0	22	109	93.97%	5
515997	20	2	0	0	22	109	93.97%	4
515567	19	2	0	0	21	113	97.41%	5
515472	18	0	0	0	18	114	98.28%	5
515369	17	0	0	0	17	115	99.14%	5
515440	0	12	0	0	12	116	100.00%	5

박형준/3월/기초GS Plus/9회/1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간접침해에 관한 총론과 같은 문제였습니다.</p> <p>아무래도 주로 다뤄지는 논점이다 보니, 다들 분량에 맞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간접 침해의 침해 판단과 직접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다소 모호하게 기재 되어있다 보니, 결론을 내리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따라서 내용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답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목차 구성이나 가독성, 분량 면에서 점수가 다소 갈렸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이용 침해 관련 판례와 간접 침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신 뒤,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셔야 합니다. 이용 침해임을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p>사안에서 전용성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사안 포섭 과정에서 논리가 타당하면 일정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또한, 배점이 8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량을 기재해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6점당 1페이지라는 분량은 꼭 지켜주세요.</p> <p>(2) 설문 2</p> <p>균등 침해 관련 판례를 써주시고 사안 포섭해 주셔야 합니다.</p> <p>4점짜리 문제이지만, 한 페이지의 2/3정도의 분량은 채워주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적으신 분들에게는 논점이 다 적혀 있어도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p>	

(3) 설문 3

타 용도 관련 판례 및 간접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써야하는 판례와 결론을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경우, 분량과 가독성에서 점수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독성이 조금 안 좋아도 분량적으로 많이 기재해 주시거나, 목차 구성이 좋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4) 설문 4

간접 침해의 선결 문제로서 직접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결론도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결적으로 간결하게 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평가가 다르므로 나름의 논리를 전개해 주시면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간접침해 논점에 대하여는 다들 익숙하셔서 적당히 잘 적어주신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판례는 잘 알고 있으나 실제 사안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판례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다소 혼동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분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배점이 8점 미만인 경우, 최대한 주 논점 위주로 기재해주세요. 이 이상 기재해 주셔도 점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점이 10점 이상인 문제라면, 그에 맞게 분량도 늘려주시는 연습해주세요!

박형준/3월/기초GS Plus/9회/2번	채점자
	김시연
<p>1. 전반적인 총평</p> <p>의식적 제외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p> <p>감축 보정한 경우와, 감축 보정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의 케이스를 구분하여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목차 구성하시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p> <p>시간에 쫓겨,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시간 조절은 꼭 계속 신경써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출원발명과 실시발명이 다르므로, 균등론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p> <p>균등론의 요건 및 의의를 생략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안에서 출원발명, 실시발명을 확정하여 비교하는 과정은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p> <p>또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문언침해 여부를 판단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p> <p>대부분 의식적 제외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주셨지만,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논리적 흐름이 타당하면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2) 설문 2</p> <p>보정 없이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써주셔야 합니다. 목차에서 설문 1과의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써주신 분에게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또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판례를 똑같이 적어주셨기에 판단과정에 대한 사안 포섭을 명확하게 잘 기재하신 분에게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3. 소결

문제 1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분량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분량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용 구성이 아주 뛰어나지 않는 한, 남들과 비슷한 점수를 드리기에 애매해집니다.

또한, 글씨체와 관련하여 너무 심하게 뭉개지거나 알아보기 힘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글씨체를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 ① 최대한 자음을 크게 쓰시고,
- ② 중요 단어와 끝맺음 단어에만 신경써서 써주셔도 가독성이 확 올라갑니다.
- ③ 설문마다 마지막에 결론 목차를 항상 적어주시고 결론은 간결하게 정리해주세요.
- ④ 그리고 최대한 목차를 간결하게 많이 빼서,
- ⑤ 목차 제목만 신경 써서 써주시는 것도 득점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가독성이 나빠져요.

소목차로 내려갈 때 들여쓰기 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여 쓰면 빈공간이 많아서 양이 적어 보이고, 너무 안 들여 쓰고 붙여서 쓰면 가독성이 안 좋아집니다.

답안지에 양 옆에 여백이 너무 많으면 분량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답안지 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이러한 점에도 유의해주세요.

[문제-1]

I 실문 (1)

1 직권침해

(1) 의미, 취지 - 법 제127조

특히 전문 목적 재산권이므로 침해 발생이 용이하지
않아, 직권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소장의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판~~ 위체제가 완성한 취지

대법원 위체제는 ① 직권침해는 아니지만, 2관대
에 있는 하급법도 직권침해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상대 특허원 침해에 대한 권리 주체의 불충족을
통제)이 위해 소급입건 하에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며,
국간권침해 제도는 특허권이 복당하게 함을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충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

(3) 원

① 물건 발명의 경우 특허목적 내지에만 사용/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여야 하며 (상용제외)
② 방법 발명의 경우 특허목적 실시에만 사용
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상용제외) 하여야
한다. (상제/업주 제외)

2 평형성 관련 - 물건침해 이외 문제



1) 이용침해 관련 - 위시제

대법원 위시제는 권능주인이 개선된 다른 권능주인과
경쟁하여 특허발명보다 더 나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간접침해 성립에 아예
자랑이 없다는 입장이다.

2) 검토

이용침해로 직접침해에 해당하므로 직접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3) 사안

① 2은 甲 발명 X의 권능주인 C에 D를 추가하여
완성하고 있다.

② 권능주를 완제하는 행위는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③ C를 이용하여 발명을 만들 경우 A B C D로
이른 이용침해에 해당하는데, 위시제는 이용
침해 경우에도 권능주의 공용성을 인정한다.

④ 따라서 2의 행위는 특허법 제12조의 침해를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II 실문 (2)

1) 권능성 관련 - 문헌침해 이외 문제

(1) 권능침해 관련 - 위시제

대법원 위시제는 간접침해 대상으로, ①



특허법상과 동등한 물건이 시장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특허법상과 동등한 물건이 시장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간접침해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권위

중립해도 직접침해에 해당하므로, 간접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2. 사안

책은 A 발명자의 전무품인 C와 동등한 C'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법원 위치는 중립해를 이루는 경우에도 간접침해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책의 C' 판매 행위는 특허법 제12조 침해는 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표 실문 (3)

1.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 사기 - 금융회 위반.

(1) 금융회 위반: 물건 생산의 의미

대법원 위치는 물건의 생산이란 발명자의 구성요건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 하여 발명자의 모든 구성요건을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광학적 생산이 행하지 않고 가공, 전압 등의 행위로 완성된다고 한다.

(2) 사안

특허대상 발명 (A+B+C)은 특허발명 X (A+B/C)의 B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공 시 A+M+B/C로만 ~~가~~가 되는데 사용 가능하므로, 인정을 충족한다.

2 바탕에 세워져 연마패드 설치 - 전용성 판단

1) 타당도 판단 방법 - 취지

대법원 취지는 특허발명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승인되는 경제적인, 상업적, 실용적인 다른 동등한 것을 이론으로 판단하며, ① 단호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불리한 경우, 간접 침해의 소리를 부각할 만한 다른 동등한 것인 할 수 없다고 한다.

(2) 특정 구매자 사용 양면

대법원 취지는 어떤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데, 그 물건이 여러 동등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도 ≠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때 특허발명의 구매가 반드시 양기된다면 간접침해가 성립한다고 할 바 있다.

1) 사안

제3자가 도르록터 공구발은 A+B/C를 이용해

가령하면 A+B+C로만 나타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B가 생기기 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동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용성 또한 충족한다.

3
 결론

J의 A+B+C ~~파동도~~는 공유성과 전용성을
 충족하므로 A, 학인대상 발명의 물건은
 J의 특허 ~~특허~~ ^{X의} 생전에만 사용되도록 것이다.
 따라서 J의 A+B+C를 생전·판사(한 행정/법원)
 간판침해가 인정된다.

IV 생전 판

1 무제침

- ① 특허자의 특허권 해의에서 판제들을 만행
 시켜 '무제침'을 행한 것을 침해로 볼 수 없다.
- ② 구성요소만이 특허권 해의에서 판제들을
 행한 것만으로 특허권을 침해로 볼 수 없다.

2 ~~판제~~ 판제들을 수를 가진 - 직접침해 관련 행위

1) 무제침

대법원은 무제침은 ① 구성요소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략되거나 대부분의 생략요소를 대체 주은
 구성 모두 각부분 판제들이 생략되어, ② 이것이

하나의 주제어에 수출되어 나머지 단어의
가중·전장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iii) 이와 같은 가중·전장이 국외 사형어나
잔존한 경우, ④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통치불가능성이 생길 것이라
같이 보는 것이 통치불가능성에 관한
판단 하였다.

(2) 검토

~~위헌성~~가 제시한 것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면
이들 각각을 합쳐서 간주하더라도 제2자가
불법 불이익 하중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볼이므로 위헌성 판단은 이를 부정한다.

3. 반제출 수급 사건 - 간접침해 관련 법리

(1) 위헌성

대한법률 위헌성은 ① 특허법 제12조 제1항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불이 인정하므로, ② 이러한 생산이 국외
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권 행사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생략할 수 없고, ③ 원심이 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반제출은 모두 국외에서

반제물을 생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간접침해 제를 이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4. 사안

- ① 1의 반제물을 A는 수출되어 제3국에서 반제물을 A에서 생산하는 데 이용되었다.
- ② 2의 가공·정련이 극히 미미하거나 간단하다면 1의 반제물을 생산 행위는 무 특허에 대한 직접침해에 해당한다.
- ③ 만일 2의 가공·정련이 극미미하거나 간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침해가 인정되는 예나적 경우가 아니라면, 반제물의 국내 생산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태도에 따라, 간접침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

[문제 2]

I. 실문 1)

1. 위법 제의이론(1) 위법 제의이론

① 금반면 법리상,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에 관한 법원에서 위법적임을 제의한 것은 특허 발명권 불충분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으로서 허용된 법리이다.

(2) 법리

대법원 위법제하는 특허원 또는 특허원지사가 특허발명권 불충분법원에서 실시발명을 원의 범주로부터 위법적임을 제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원지사가 실시발명을 상대로 실시발명권이 특허발명권에 불충분하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면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단 기준

대법원 위법제하는 특허원 법원에 드려난 여러 사건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원이 어떤 사건을 권리 범위에서 제의하는

이사가 존재한다 볼 수 있을 때 이를 인정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2. 채구법위 간혹이 있었던 경우

(1) 합설

① 양적한 채구법위 채구법위가 간혹된
문헌을 보아서는 전등합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② 유언한 채구법위 채구
법위가 간혹된 문헌을 보아서는 전등합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채구법위

채구법위 채구법은 ① 출원과정에서 채구법위
간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간혹 권과
합혹 혹은 개정을 비교해 그사이 모든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
② 출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야 할 때 출원인이 이를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 볼 수 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③ 유언한 채구법
간혹을 인정하지 하였다.

(3) 사안

① 甲은 출원발명의 구성 A를 어떤 간혹
보유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외 실시에는

개별 A2가 사용되고 있다.

② 우측면 명세서에는 A1이 A2에 비해
후라 마 유속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범위
에는 A1만을 기재하였다. 이는 A2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2의 주장은 타당하며, 2의 실시는
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II 결론 (2).

1 상해기술 회피를 위한 불특정 이 다른 사적으로 인한
의식적 제외를 적용 가능

1) 불특정 제외제

~~① 새 기술, 상해기술 회피를 위한 불특정이
 있었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되는 ① 상해기술 회피 이외 다른 이유로
 불특정이 있었는 경우, ② 청구범위 광범위 함으로
이전서 제외된 것만 있었는 경우, ③ 출원 사항을 넘어
특허 등을 즉 경쟁을 통해 청구범위 광범위 함이
있었던 경우에만 하한가치는 적용된다고 한다.

2) 상조

의식적 제외 근거가 동반되어 있다면, 출원인
 권리행사의 제외의사가 밝혀진 것 자체가 충분한
 것이므로, 제외제가 타당하다.



(2) 사안

무엇 보강 없이 비로 b2에 대해 효과 기타
유사하다는 의견에만 제출한 경우 ~~이점~~, 이때에도
배심원에 따르면 의식적 제의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2 사안

① 무의 Atb에 대해서 Atb2에 의해 권보하
기반의 기결이유 통지가 나왔을 때 무의 의제서
제출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의식적 제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데, 무의 b2를 의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그 후 Atb2 C를 실시하고 있는데, b2는 무의
의식적으로 제기한 구상도 해당하므로, 이용청하가
사행하는지라 무관하게 그의 실시는 무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따라서 무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

- 이하 여백 -

냉정, 냉감 풍요!

문제 1. (특허법은 이하 법이라 한다.)

I. 성문 (1)

1. 간접침해 의의·추지 - 法 127조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침해 방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직접침해 개연성이 높은 소정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判例 판시 추지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그 전단계에 있는 행위라면 직접 개연성이 큰 경우 장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원기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행위 하에 침해를 간주하는 것이다.

3. 예

(1) 물건반영의 경우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으로서 실시(사용 제1) 해야 한다 (法 127조 1항)

(2) 전용품

전용품이란 공용성과 전용성을 갖춘 물건이다. 공용성은 특허발명 실시에 사용될 것, 전용성은 실시에만 사용될 것을 말한다.

4. 이용침해 관련 判例

전용품이 개선된 다른 제품이 결합되어 특허발명보다 더 우수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접침해 성립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 6

5. 사안

C는 발명 X의 전용품이므로 그 권리가 D가
부기되더라도 간접침해 성립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C+D를 판매 중인 Z의 행위
는 法 11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
하므로 Z의 주장은 부당하다.

II. 설문 (2)

1. 균등해 관련 사례

간접침해 대상물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물건~~의~~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
과 균등한 물건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경
우에도 간접침해 성립이 가능하다.

2. 사안

C'은 C와 균등한 범위 내의 물건이므로
C'은 특허발명 A+B+C와 균등한 물건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의 C' ~~≠~~ 판매 행위는 法 ~~≠~~
12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III. 생산 (3)

1. 공용성 판단

(1) 물건 생산 의미 (원칙)

'생산'이란 발명 구성요건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 모든 구성요건을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듦을 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정제 등의 행위로 포함된다.

(2) 사안

실시발명 $A+M+C$ 는 특허발명 $A+B+C$ 의 구성요건 중 B 가 결여되어 있지만 가공 ~~사~~시 $A+M+B+C$ 가 되는 데 사용 가능하므로 공용성이 충족된다.

2. 진용성 판단

(1) 타용성 판단방법

사회경제상 유용하다고 승인될 수 있는 정제적, 상업적, 실용적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임시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간접침해 성립을 부정할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 권리와 사용 관련 원칙

이런 물건 생산, 판매 시 그 물건이 여러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물건을 구매한 제 3자가 그 물건 사용 시 특허발명 구성이 반드시 갖추어진다면 간접침해 성립한다.

(3) 사안

그이 주장한 방식이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인 지라도 이론적. 실험적. 임시적 가능성이 분라하다면 타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용성도 충족한다.

3. 결과

ATM+C의 제조. 공급 행위는 ~~공용~~ 공용성. 전용성 요건이 충족되지 간접침해가 성립된다.

IV. 쟁점 (4)

1. 문제점

① 독지주의 원칙상 해리에서 반제품을 만성시켜 반제품을 생산한 것은 침해로 볼 수 있고, ② 그 상호양비 원칙상 국내 반제품 생산만으로 특허물건의 생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직접침해 관련 법리

(1) 판례

1) 원칙

독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은

등록권이 영영 내외에만 효력이 미친다

2) 예외

① 국내에서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요소 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하나의 주체에게 수주된 마지막 단계 가공.조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그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한거나 간단하여 위 반제품 생산만으로 특허발명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보는 것이 특허권 침해에 불합한다.

3. 간접침해 관련 법리

(1) 원시제

특제권의 원시상 특허권자와 동등한 권리는 등록 국가 내 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法 121조 1호 본문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생산으로 국내 생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생산이 타국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단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 성립될 수 있다.

4. 사안

제3자가 제3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가 극히 사소한거나 간단하다면 戊의 국내 반제품 생산행위는 직접침해에 해당하

고 제3자의 마지막 단계 행위가 극히 사소한
거나 간단하지 않다면 戊의 행위는 국내
완제품 생산이 아니므로 직접침해나 간접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900 (플)

문제 2.

I. 서문 (1)

1. 의식적 제외 이유 의의. 취지

금반전의 법리상 실시방법이 특허방법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 특허방법 보호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고 보는 이리이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判例로써 확립된 법칙이다.

2. 법리

判例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실시방법을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실시방법이 특허방법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는 것을 금반전 원칙이 무배려에 적용될 수 있
다고 한다.

3. 판단기준 判例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출원인이 어떤 것을 권해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4. 고려의 사례

명세서 뿐만 아니라 심사관 제시 권해 및 출원인 제출 문서. 의견서 등이 나타난 출원인 피드백 상이유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5. 청구범위 강조가 있는 경우

(1) 해석

① 명정한 구성으로 강조 문언 넘어 균등침해 인정 불가한 전제. ② 유연한 구성으로 문언 넘어서도 균등침해 인정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2) 사례

출원인 측 청구범위 강조 사항만으로 강조 전·후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의식적으로 지터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출원인이 지터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의식적 지터 권은 금반언이므로 출원인 의사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원해가 타당하다.

6. 사안

사안의 경우 甲의 명세서에 A1은 A2에 비

해 효과 P가 유사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인이 a2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발명~~
발명 A+b는 a+b으로 ~~강속~~ ~~발명~~하였으
므로 a2는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2는 甲 발명의
발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Z의 a2+b 실
시는 특허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II. ~~성문~~ (2)

1. 선행기술 히피 이 다른 사정으로 인한 제외 적용 거부

(1) ~~학문~~

① 선행기술 히피 보지만 적용가능하다는 제1항, ②
발명 이유와 관련 없이 적용가능하다는 제2항, ③
의견서 만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제3항이 있다.

(2) ~~사실~~

선행기술 히피 이 다른 이유 보장의 경우, 강속 없
이 의견서 제출만 있는 경우, 특허 등록 후 제
삼을 통해 강속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3) ~~결론~~

출원인의 제외 의사가 밝혀진 것이 중요하고 그
러한 의사의 원인이나 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원인이 타당하다.

